

CURRICULUM VITAE

이시훈

가천의대 내과



[학력]

1992-199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MD)
2000-2005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PhD)
2006-2008	미국 국립보건원 (NIH) (Postdoc)

[경력]

1998-2003	세브란스병원 내과 전공의
2004-2005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연구원
2005-200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강사
2008-현재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
2016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GPLLI 초빙교원
2016-2017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MGH 초빙부교수
2023-현재	미국 마운트사이나이 의과대학 약리학 겸임교수

[관심분야]

희귀유전질환, (부)갑상선호르몬, 탈요오드화효소, 재생의료, 정밀의료, 유전자편집

[논문]

1. Association of blood pressure with cardio-renal events and mortality in Type 2 DM: a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J Clin Endocrinol Metab* 109:227-236, 2024
2. In-depth proteomic signature of parathyroid carcinoma. *Eur J Endocrinol* 188:385-394, 2023
3. Inherited Disorders of Thyroid Hormone Metabolism Defect caused by Selenoprotein Dysregulation. *Front Endocrinol* 12:803024. doi: 10.3389/fendo.2021.803024, 2022
4. Rare PTH Gene Mutations Causing Parathyroid Disorders: A Review. *Endocrinol Metab* 35:64-70, 2020
5. Incidence of hypoparathyroidism after thyroid cancer surgery in South Korea, 2007-2016. *JAMA* 322:2441-2443, 2019

건강보조식품의 허와 실

이시훈

가천의대 내과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대사성 질환 환자 진료 시 영양상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생활습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물 섭취이기 때문인데, 3분 진료로 대표되는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병원 시스템에서 생활습관 교정, 즉, 운동 및 식이 습관에 대한 교육 및 처방을 함께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떤 조성의 음식을 어느 정도 섭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일텐데, 자주 환자에게서 이러저러한 음식 및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질문을 받을 때, 꽤나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워낙 많은 환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환되어 있다 보니 민간에서 예전부터 구전되는 전통요법도 많고, 신문지상이나 인터넷 상에도 효과가 좋다는 정체 불명의 약제(?)에 대한 정보도 넘쳐나고 있다. 환자에게 최적의 처방과 교육으로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의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환자가 궁금해하는 보조식품 섭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하는 게 당연한 도리인데, 도무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도출하기도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요청에 부응하고자 1999년 전 세계 의생명연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을 설립하였고, 보완대체의학이란 미명하에 시행되는 수많은 검증되지 않은 약제 및 의료행태들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곳에서 Dr. Michael Quon의 지도하에 박사 후 과정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보완대체의학이란 우리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에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배경과 근거 중심의 정통의학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수 천 년간 경험적으로 수행되어 왔거나 구전된 각종 전통 혹은 민간의료, 그리고 대규모

의 임상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채 소규모의 제한적인 효과를 입증한 의료 행태로서 추가적인 안전성이나 보편적 효과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일컫는 말로, 우리의 전통 의학이나 민간요법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주로 침술이나 명상 등 객관화하거나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대상은 배제하였고, 당뇨병 및 그 합병증, 혹은 심혈관계에 효과가 예상되는 건강보조식품이나 기능성 식품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Dr. Quon이 강조한 부분은 기존의 정통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뿐만 아니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맹목적 신뢰 및 편견을 배제하고 그 숨어있는 가치를 최대한 도출하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위해를 찾아내기 위한 깊은 상호 이해 및 높은 표준 수준(higher standard)이었다. Dr. Quon은 당뇨병 및 인슐린 저항성, 혈관내피세포 기능 부전에 대해 이미 세계적 석학 반열에 오른 분이었고, 이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 높고 깊었는데, 새로운 보조식품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보조식품에 대한 가치의 검증은 실험실적 연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 실험과 인슐린 클램프법을 이용한 임상시험으로 연결되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전 세계 연구자들 및 임상가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에 깊은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당뇨병에 뽕나무가 좋은지 홍삼이 좋은지, 오메가-3가 혈관건강에 좋은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없기에 답답한 면이 없지 않지만, 분명한 근거와 축적된 많은 경험이 부족한 보조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한다. 그리고 정말 효과가 기대되는 보조식품이 있으면, 시간과 비용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연구와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느리지만 정도(正道)라고 감히 말씀드린다.